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권 기 범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자아를 잃어가는 현대인에 대한
회화적 표현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2017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조 현 주

자아를 잃어가는 현대인에 대한
회화적 표현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권기범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조현주

인 준 서

조현주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7년 5월

심사위원장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개요

위 논문은 현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불안한 심리를 풍경과 인물을 통해 담아낸 (2013년~2016년)의 작품들에 관한 연구이다. ‘소통’과 ‘관계’를 의미할 수 없는 사회라는 집단에 속한 현대인들을 관찰해보며, 수많은 관계 안에서 우리는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개인은 자신의 자아와 부딪히는 상황을 많이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집단 안에서의 상호조화를 위해 타인의 의견에 무조건적인 동조와 공감을 하거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자신의 내면은 자꾸 흔들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본인은 집단 내에서의 이런 관계 형성이 왜 점점 심화되어지는지 의아했다.

현 시대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SNS라는 소통의 공간은 전 세계적으로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 간접적이지만 큰 범위의 관계망을 만들어주는 SNS라는 수단이 사회와 개인의 불안함과 고독함을 조성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런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해소되지 않는 공허함과 불안한 감정을 화폭에 담아내는 것을 시작으로 작품을 이어나갔다.

위 논문은 작품을 진행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고민이 작품에 어떤 방법으로 내적인 울림을 담아내어 관람객에게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이다. 본인이 느낀 사회의 외로운 모습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마주치는 일상의 한 장면과 주변의 평범한 인물들을 통하여 풀어내기 시작했고 본인이 가

진 회화를 대하는 태도와 공간을 바라보는 관점,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운동성과 움직임이 어떤 방식으로 나오게 되었는지, 영향 받은 작가의 작품을 통하여 비교연구 해보려 한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II. 본론	2
1. 흔들리는 현대인들의 자아	2
1) 집단 안에서의 개인	2
2) SNS에 의존하는 현대인	4
2. 회화에 나타나는 불안함과 공허함	7
1) 현장을 바라보는 심리적 관점	7
2) 회화 속 움직임에 대한 표현	12
3. 작품내용	16
III. 결론	35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1】 에드워드 호퍼, Morning sun, 1952, Oil on canvas, 71.4×101.9cm	8
【작품2】 에드워드 호퍼, Sun in an empty room, 1963	10
【작품3】 빈센트 반 고흐, 까마귀가 있는 밀밭, 1890, 캔버스에 유채 50.5×103cm	14
【작품4】 Scene 1, 2016, 장지에 혼합재료, 72x60cm	17
【작품5】 Scene2, 2016, 장지에 혼합재료, 130x97cm	18
【작품6】 Scene3, 2016, 장지에 혼합재료, 22x27cm	19
【작품7】 Scene4, 2016, 장지에 혼합재료, 27x62cm	20
【작품8】 Scene 4-1, 2016, 장지에 혼합재료, 26x26cm	21
【작품9】 Scene 5, 2016, 장지에 혼합재료, 26x26cm	21
【작품10】 아무도 없었다, 2016, 장지에 혼합재료, 112x145cm	22
【작품11】 Moment, 2016, 장지에 혼합재료, 206x140cm	24
【작품12】 Silence, 2016, 장지에 혼합재료, 112x145cm	25
【작품13】 소소한 하루, 2016, 장지에 혼합재료, 27x27cm	26
【작품14】 Scene 6, 2016, 장지에 혼합재료 24x24cm	27
【작품15】 Scene 6-1, 2016 ,장지에 혼합재료24x24cm	27
【작품16】 Moment, 2016, 장지에 혼합재료, 206x140cm	28
【작품17】 Nothing series, 2015, 장지에 수채화	29
【작품18】 Blue, 2014, 장지에 채색, 91×72.7cm	31
【작품19】 공허한 파티, 2013, 장지에 채색, 162×130cm	32
【작품20】 아무도 없었다, 2013, 장지에 혼합재료, 162×130cm	33
【작품21】 사라짐, 2013, 장지에 혼합재료, 162×130cm	34

I. 서론

‘자기 표현’시대라는 요즘, 현대인들은 어떤 자세로 사회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을까? 논문은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느끼는 원인 모를 불안함과 공허함의 시발점을 찾아보려한다.

우리가 속해있는 이 사회는 모든 것에 있어서 이미 과부하 되어있다. 스펙터클하고 강렬한 것에만 이목이 집중되며 획일적이고 일시적인 사회문화 현상에 헛헛함을 느끼며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정신없이 쫓아가기 바쁜 현대인들은 자신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특히나 집단의 성향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더욱이 심화되어지는 현상이다. ‘보여 지는 것’에 치중하며 모두가 비슷한 사상을 가진 피상적인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다. 본인은 이런 현상이 주를 이루는 젊은 층 세대들을 관찰 해 보았으며 본인 또한 이 범주 안에 있기에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었다.

예술과 문화는 당시의 시대상과 사회현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본인 또한 현대사회 문화의 영향아래 있기에 본인이 바라본 사회의 씩씩한 단면을 작품으로 자연스럽게 표출하게 되었고 위 논문은 그 자연스러운 표출에 대한 것이다. 현대인들의 불안한 심리와 그 심리를 조성하는 사회 현상을 바라보며 본인의 작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고자 하며 에드워드 호퍼의 작품을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림에 대한 세계관과 주관을 설명하려 한다. 작품에서 주를 이루는 내밀한 감성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려 했는지에 대한 것과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표현 기법을 연구하려 한다.

II. 본 론

1. 흔들리는 현대인들의 자아

1) 집단 안에서의 개인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은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사회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자신의 자아를 형성하게 된다. 현시대는 언제든 타인과 자유롭고 빠르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개인은 각자의 형성된 자아를 통해 자기 자신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하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주관이나 의견을 표출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정말 솔직하게 임하고 있을까? 우리는 수많은 관계 안에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소통을 하게 되지는 않는가. 그러므로 오는 자아에 대한 혼란과 그로인한 심리적 불안감은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겪는 딜레마다. 본인은 이러한 문제의 영향은 개인이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현시대 사회의 문화성향의 비중이 크다고 본다.

우리 사회는 크게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로 나뉘어져 있다. 우리나라는 문화의 특성상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데, 집단은 타인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며 개인의 목표보다는 집단을 위한, 집단 안에서의 상호조화를 강조하게 된다. 따라서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은 그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게 되며 소속감으로부터의 심리적 안정감을 찾으려 한다. 그러므로 더욱더 집단에 속한 개인으로서 그 역할에 충실하게 된다. 이런 관계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집단 안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보단 타인에게 맞춰진 타인 중심

적인 공감을 추구하기 바쁘다. 이렇게 점점 자신의 자아는 잃어가고 집단에 속한 구성원으로서 사회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의 삶이 지속된다면 자아에 대한 혼란은 물론 자아존중감은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 자존감이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과 존재에 대한 가치를 말하는 것인데, 자존감의 정도에 따라 개인은 자신의 행복도와 심리적 안정감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¹⁾ 이렇게 삶의 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아존중감은 어떻게 우리 내면에 자리 잡히게 되는 것일까?

자아존중감은 대체적으로 ‘자신-타인에 대한 평가’로서 크게 영향 받게 된다. 로젠버그(Morris Rosenberg)의 자존감의 척도를 중심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개인의 성취감도 어느 정도 작용하지만 자신의 능력과 인성에 대한 사회와 타인의 인정, 또한 ‘타인으로부터의 인기’가 중요한 것으로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가 나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하기보다 남들에게 ‘보여 지는 것’에 자존감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 나타내어 주는 것이다. 나의 능력은 직접적인 경제력으로 인정받게 되며 신체적으로 매력적인 외모를 가짐으로써 얻는 인기가 자존감의 정도를 결정짓는 것이다.²⁾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나라는 집단주의 문화의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존감을 쌓는 기준 또한 상호의존적인 성향이 보이게 되는 것이다.³⁾ 남

-
- 1)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는 자신이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느끼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할지 등 개인의 전반적인 삶의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Baumeister, Campbell, Kruger & Vohs, 2003).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 개인이 삶에서 느끼는 행복감이 달라질 수 있다(Furnham & Cheng, 2000). (네이버 지식백과)
 - 2) 차경호, 홍기원, 김명소, 한영석, 『한국 성인의 자존감 구성요인 탐색 및 척도개발』, 한국심리학회, 2005, p.121-125.
 - 3) 삶의 만족도와 자존감의 관계를 살펴본 Kwan, Bond 및 Singelis(1997)의 연구에서는 미국대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는 자아 존중감에 영향을 많이 받고, 홍콩의 대학생들은 자아존중감에 비하여 관계 조화성(relationship harmony)에 더 강한 영향을 받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한국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차경호(2001)의 연구도 삶의 만족도는 자아존중감보다는 개인의 집합적 자아에 대한 평가인 집단자아존중감(collective self-esteem)이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차경호, 홍기원, 김명소, 한영석, 『한국 성인의 자존감 구성요인 탐색 및 척도개발』, 한국심리학회, 2005, p.125.

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인데, 보통 이런 경우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이다. 자존감을 결정짓는데 타인의 ‘평가’라는 것이 크게 자리 잡으면서 남의 시선을 의식하기 바빠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잃어가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내면의 만족도는 채워지지 못한 채 자기 존중에 실패하는 경험은 계속된다. 이렇게 우리는 후회하고 흔들리며 공허함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2) SNS(Social Network Service) 에 의존하는 현대인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타인과의 소통이 가능하다. 디지털 시대인 첨단기술이 발달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의사소통의 수단은 단연 스마트폰을 통한 SNS(Social Network Service) 일 것이다. SNS를 바라보는 관점은 너무 다양하여 단순히 정의 내리기에는 복잡하다. 다양한 관점들 사이에서 공통점을 정리하자면, “SNS는 웹 사이트라는 온라인 공간에서 공통의 관심이나 활동을 지향하는 일정한 수의 사람들이 일정한 시간 이상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상 정보를 드러내고 정보 교환을 수행함으로써 대인 관계망을 형성토록 해 주는 웹 기반의 온라인 서비스로 정의될 수 있다.”⁴⁾

온라인 공간 속의 나. 우리는 현실 속 나의 모습보다 사이버 공간 속 자신의 모습에 더 치중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떤 음식을 먹는지 등의 모든 사적인 부분을 일 분 일 초 발

4)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을 구축해 주는 온라인 서비스인 SNS는 최근 페이스북(Facebook)과 트위터(Twitter) 등의 폭발적 성장에 따라 사회적·학문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했다. SNS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역사와 같이 할 만큼 역사가 오래되었지만, 현대적인 SNS는 1990년대 이후 월드와이드웹 발전의 산물이다. 신상 정보의 공개, 관계망의 구축과 공개, 의견이나 정보의 게시, 모바일 지원 등의 기능을 갖는 SNS는 서비스마다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관점에 따라 각기 다른 측면에 주목한다. SNS는 사회적 파급력만큼 많은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빠르게 사이버 공간에 노출시킨다. 빠른 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는 우리의 삶을 획일화시켜버렸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다시 잠에 드는 시간까지 스마트폰이 없으면 미치도록 불안함을 느끼는 것이 현실이다.

본인은 SNS상에서 꽤나 유명하다는 맛집에 가보면 항상 느끼는 부분이 있다. 사람들은 그 음식점의 가장 유명하다는 메뉴를 이미 숙지한 후 외워온 듯 빠르게 주문한 뒤 음식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매장 내 주변을 돌아다니며 잘 꾸며진 인테리어 사진을 찍는다. 물론 같이 온 동행인과는 따로따로.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자동적으로 서로 핸드폰을 들기 바쁘다. 오랜 기다림 끝에 따뜻한 음식이 나오면 다시 카메라를 든다. 따뜻했던 음식이 식을 때까지 촬영에 대한 열정은 끝이 없다. 어떻게 찍으면 더 맛있어 보일까,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각도로 찍느라 먹을 생각은 안하는 듯 보인다. 결국 만족스러운 결과물은 얻지 못했다는 듯 아쉽지만 음식을 먹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이미 음식은 식을 대로 식은 상태이니 가장 맛있을 때 먹는 행복은 놓치게 된 것이다. 식사 중에도 그들은 스마트폰을 바라보며 대화와 침묵을 반복 한다. 심지어 대화의 내용은 방금 찍은 사진에 대한 것이다. 마치 그들은 'SNS에 새로운 사진 올리기'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만남인 것 같다. 일대일로서 상대방과 소통을 위한 직접적인 만남은 지루한 듯 보였다. 대화의 상대를 앞에 두고도 온라인상에서 타이핑으로서 대화를 하는 기이한 현상을 보게 된다. 마치 새로운 한 종류의 문화생활처럼 되어버린 것 같다.

왜 이런 문화생활이 현대인들의 생활 깊숙이 자리 잡히게 된 것 일까? 본인은 자신의 자존감을 'SNS 속 자신의 모습'으로서 남들의 긍정적인 평가로 키우려는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SNS는 타인의 생활을 이미지로서 관찰하게 되고 단편적으로 그 인물을 평가하게 된다. 그렇기에 SNS안에서 만큼은 자

신의 힘든 현실은 숨기고 외면한 채, 더 매력적인 모습으로서 남들에게 과시하려고 하며 ‘타인으로부터의 인기’를 얻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지켜보면서 암묵적으로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남보다 못한 상황과 갖지 못한,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열망만 늘어나며 자신에 대한 현실을 부정하게 되고 불안감을 생성한다. 때문에 자신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현실의 자연스러운 모습보단 본인을 이미지로서 강하게 어필하고픈 욕망이 커지게 될 것이다. 남들이 한다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쫓아가야 할 것 같으며 웬지 못 따라 간다면 세상에서 뒤쳐지는 것 같은 불안한 심리를 왜 가져야 하는가. 특히 우리나라의 문화성향은 이런 특성이 강하다. 남들과 나 자신을 비교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비교문화⁵⁾의 폐해라고 생각된다. 그렇게 SNS는 서로가 서로에게 과시하기 위한, 타인을 의식한 획일적인 소통의 공간으로 변질되어졌다. 현 사회의 불안감 조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생각 된다.

SNS에 의존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은 해결 될 수 없는 또 다른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SNS는 가상공간이라는 것이다. 인터넷이라는 통신망이 처음 사용되던 당시에 미국의 연구에서는 인터넷의 잦은 사용은 인간의 고독감을 유발시킨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⁶⁾ 이유는 얼굴을 대면하는 직접적인 대화가 아닌, 문자로서 대화하는 간접적인 사이버관계의 유지는 심리적 안정감과 행복감에 필요한 상호의지와 따뜻한 정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수없이 많은 대화와 공감을 공유한다 하여도 직접적인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대화 안에서의 주고 받는 표정이나 말의 어투, 대화의 뉘앙스 같은 디테일을 놓치게 되고, 무엇보다 상대방과 공감하며 나누는 감정이 없기 때문에 간접적인 대화는 공허한 소

5) 남과 비교하는 것이 강한 아시아권 문화와 그렇지 않은 북미 문화권의 아이들이 자아존중감 정도가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Twenge & Crocker, 2002). 이 연구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아이들이 학업 성적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남과 비교하는 문화 분위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평가를 북미 아이들보다 훨씬 낮게 한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6) 한겨레, 인터넷 고독감 유발, 1998.09.01. 기사(뉴스)

통이 된다. 이런 소통은 빈도가 잦다고 하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독감이나 외로움을 채워 줄 수는 없었다. 우리가 끊임없는 불안함과 공허함에 시달리는 이유 중 하나가 된다.

2. 회화에 나타나는 불안함과 공허함.

1) 현장을 바라보는 심리적 관점.

빠른 기술과 문명의 발전에도 현대 사회는 점점 더 피폐해져 가고 있다.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기 보다는 오히려 너무나 익숙해져버린 현대인들은 자신을 더 깊숙이 고립시키고 있는 듯 보인다. 더 안타까운 것은 획일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신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한한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생활수준을 향상 시켜주는 듯 보였지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성은 희미해지고 정이라는 따뜻함은 퇴색되어가고 있는 것 같았다. 기계처럼 정신없이 반복되는 똑같은 일상과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지친 현대인들의 시간은 의미 없이 흐르는 듯 보인다. 본인은 이런 현상을 바라보며 얼핏 보면 화려하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느껴지는 공허한 심리를 현대 사회의 모습을 통해 작품으로 나타내려 했다.

본인은 에드워드 호퍼(Edward Hopper)⁷⁾의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관점과 회화의 분위기, 심리적 표현 부분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호퍼의 작품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공간과 빛, 그리고 그림자였다. 차가운 느낌의 텅 빈

7) 미국의 대표적인 사실주의 화가. 20세기 미국인의 삶의 단면을 무심하고 무표정한 방식으로 포착함으로써 인간 내면에 깃들여 있는 고독과 상실감, 단절을 표현했다. 그의 작품에서 공간과 빛, 인물이 어우러져 빚어내는 풍경은 현실이라는 표피에 감싸인 내부로의 웅시이며, 이로 인한 감각을 일깨워준다.(두산백과)

공간과 대비되는 밝고 따뜻한 빛,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표정의 인물들과 적막한 공기를 담아내고 있는 공간은 세상과 단절된 듯 보인다. 실제로 호퍼는 양차대전 사이에 미국 도시민들의 삶에 드리워졌던 고독감과 절망감을 표현하였다. 호퍼의 작품들을 보며 영향 받은 부분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작업 세계관을 설명하려 한다.



【작품1】 Morning sun, 1952, Oil on canvas, 71.4×101.9cm

【작품1】은 호퍼 특유의 심리적 장치를 가장 잘 담아내었다 생각되는 작품이다. 어떠한 소음도 없을 것 같은 공간 안에서 조용히 앉아 열려진 창문 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여성. 안과 밖의 경계를 짓는 창문 밖의 세상도 외로워 보이기는 마찬가지다. 바람도 불 것 같지 않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과 메마른 듯 딱딱한 건물의 표현은 고독해보였고 시간은 멈춰버린 것 같

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듯한 여성을 비추는 밝은 빛과 그림자는 여성을 더 외롭게 만들었다.

단절을 상징하는 것 같은 수평선의 풍경과 외로운 빛과 그림자의 표현은 호퍼의 작품에서 빠지지 않는 요소이다. 본인은 특히 이런 부분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지만 어딘지 모르게 현실적이지 않은 듯한 느낌은 묘한 긴장감과 정적인 느낌이 만나면서 더 외롭고 고독해지는 것 같았다.

“그림이란 실제의 장소를 그대로 옮기는 작업이 아니라, 그 곳을 이루는 여러 요소들이 제공하는 윤곽과 인상들을 조합해내는 것이다.”⁸⁾

단순한 현장의 재현은 사진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되며 작가를 통해 그 현장의 모습은 회화로서 새롭게 재창조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인이 작품을 진행하며 평범한 일상의 풍경과 인물들을 소재로 사용한 이유는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초상화로서 당시의 모습을 가장 잘 담아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런 이유로 현장의 장면, 공간의 모습을 화폭으로 가져왔고 그 안에 현대인의 내면의 심리를 담아내기 위해 현장을 사실 그대로 재현하기 보단 사회의 모습과 당시의 상황, 심리를 담아내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때문에 사실보다 더 과장하거나 필요한 부분은 첨가도 하였으며 불필요한 부분은 배제시키기도 했다. 현장에서 충분히 그 곳의 감성을 느끼고 돌아온 후 본인의 의식과 감정이 자연스럽게 뒤섞여 작업에 녹아들어갈 바랬다.

호퍼는 자신의 생각을 자극하는 이미지와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대상을 찾

8) 룰프 쿤터 레너, 『에드워드 호퍼』, 마로니에북스, 2005, p71,

아 뉴욕을 끊임없이 돌아다녔다. 자신의 시각적 이상향을 찾아낸 호퍼는 유럽을 여행하면서 만난 풍경을 '시각적 사건'이라고 불렀으며, 대도시가 주는 느낌과 시골 풍경이 주는 느낌을 잘 이해했다. 마음에 드는 풍경을 만났을 때 그는 회화적 실험을 통해 풍경이 지닌 이야기의 인상을 표현하고 싶어 했다. 호퍼는 극적인 느낌보다 시각적 사건이 지니는 진실한 감정을 찾아 나섰다.....호퍼는 그림을 그릴 소재를 찾으면 그 소재를 변형시켜 앞에서 막 일어나는 장면처럼 묘사하여 내면의 감정과 정서를 표현했다.⁹⁾



【작품2】 Sun in an empty room, 1963

9) 실비아 보르게시, 『호퍼, 고독한 현대인의 자화상』, 마로니에북스, 2009, p70.

호퍼는 인터뷰를 통해서 빛이 자신의 작업에서 색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무엇보다 후기작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 빛은 집, 방과 같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끊임없이 태어나고 살아가는 정신을 담는 요소였다.¹⁰⁾

【작품2】은 호퍼가 가지고 있는 빛에 대한 인상을 그대로 담아내었다 생각된다. 이 작품은 본인이 항상 열망하던 분위기의 화풍이었다. 부족함이라는 것은 느껴지지 않으며 그렇다고 넘치지도 않는다. 인간의 공허하고 외로운 심리의 코드를 단번에 찾아내어 스위치를 탁하고 킨 듯했다. 아무것도 없는 빈 방, 여과 없이 등장하는 네모난 창 틀, 그 사이로 들어오는 빛과 경계 지어진 그림자의 영역. 이 작품을 감상 한 후 본인의 작업 세계관에까지 영향을 받았다 말 할 수 있다.

호퍼는 빛에 대한 의미를 크게 두었다면 본인은 ‘공간’에 대한 의미를 두었다. 심리적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나만의 공간’이 필요하다. 아이들은 습관처럼 구석진 곳이나 책상 밑 같은 비밀스러운 숨겨진 공간을 찾아 들어가 아늑함을 느끼려 한다. 이는 ‘요나 콤플렉스’¹¹⁾로 설명되어지는데, 인간이 어머니의 뱃속 시절을 그리워하며 어떤 공간 안에서 평온함을 찾고 싶어 하는 심리를 말한다. 성인이 된 후에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보호받고 싶은 안정감을 원한다. 이렇듯 혼란스럽고 불안한 사회 속에서 온전히 나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과 여유는 필수 요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공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본인은 심리적인 ‘자기만의 영역’을 담아내기 위한 공간으로 말하려 한다. 본인에게 공간은 유한한 의미가 아닌 무한

10) 실비아 보르게시, 『호퍼, 고독한 현대인의 자화상』, 마로니에북스, p90.

11) 프랑스의 철학자 가스통 바슐라르는 《공간의 시학》이라는 저서에서 요나콤플렉스에 대해 언급하였다. 즉, 그것은 우리들이 어머니의 태반 속에 있을 때에 우리들의 무의식 속에 형성된 이미지로서, 우리들이 어떤 공간에 감싸이듯이 들어 있을 때에 안온함과 평화로움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요나콤플렉스이다.(두산백과)

한 의미라고 말하고 싶다. 공간, 현장에는 그 곳만이 품고 있는 내밀한 감성이 깃들여져 있다. 당시의 날씨와 향기, 특정한 시간대에서 느껴지는 빛의 감성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하나가 되어 그 공간과 현장을 채워주어 완성되는 것이다. 또한 그 감성을 담아내는 이가 누구냐에 따라, 같은 곳을 바라보아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그 공간은 무한한 변화가 가능한 것이다. 본인의 작업에 등장하는 장면들은 모두 그냥 지나치기 쉬운 평범하고 소소한 장소들이다. 특별하거나 억지로 만들어진, 연출되어진 장면들이 아니다. 하지만 한번 지나치면 다시 마주할 수 없는, 본인이 마주한 '시각적 사건'의 풍경의 모습으로서 개인의 내밀한 감성을 작품에 이입시키기 위한 요소로서 등장한다.

2) 회화 속 움직임의 표현.

현장을 바라보고 받은 기운과 감성으로 현대인들의 심리를 어떻게 하면 잘 나타낼 수 있을까 고민했다. 우리는 불안하며 고독하고, 흔들리고 있었다. 관람객이 같이 요동치는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표현기법적인 면을 부각시키려 연구했고, 속도감과 움직임이라는 답을 얻었다.

본인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유로운 표현이었다. 작업을 시작하면서 직접적인 표현을 위한 터치감이라는 것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 본인의 초기 작업은 회미함을 추구하고, 감정을 직접적으로 들어내기 보다는 은유적으로 표현하려 했었다. 하지만 작업 과정 중 답답함을 느꼈고, 새로운 표현을 도전해보고 싶었다.

“지금은 꽃 핀 과일나무들, 즉 분홍색 복숭아나무나 희고 노란
배나무에 빠져있네.

내 붓 터치에는 일정한 양식이 없어. 난 고르지 않은 터치로 캔버스를
채워가고, 또 그렇게 내버려두지.

두텁게 색칠된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캔버스의 일부는 채워지지 않은 채
남겨지고 또 다른 부분들은 완전히 미완성이야. 다시 손질을 하거나 거친
터치가 가해진 부분도 있어. 테크닉에 대한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런 결과물을 보고 당황하고 기분이 상하거나 전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겠지.

늘 그렇듯 현장에서 직접 작업을 하는 동안 난 데생에서 본질을
포착하려고 하네.

그 다음 빈 공간에 윤곽선들을 그려 넣지. 분명한 부분도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어느 경우라도 마음에 와 닿았던 것들이야. 이것들 역시
단순화된 색조로 채워나간다네. 흙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동일한
보랏빛이고, 하늘은 모두 푸른색을 띠는 거야. 초목은 청록색 혹은
황록색이지. 이 경우 노랑이나 푸른 색조들이 의도적으로 강조되네.”¹²⁾

-1888년 4월 9일

고흐(Vincent Van Gogh)¹³⁾가 직접 쓴 편지의 내용이다. 고흐가 어떤 방식으
로 작품을 진행해 왔는지 느낄 수 있었다. 이 부분을 읽고 본인은 크게 깨
달았다. 이번 작품을 진행하기 전 본인은 알게 모르게 그림에 감정이나 형
상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조심스러움이 컸고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다.

12) 빈센트 반 고흐, Editer by H.Anna Suh 『VINCENT VAN GOGH 고흐의 재발견』, SYSO, 2012, p101.

13) 네덜란드의 후기 인상주의 화가. 짧은 생애였지만 가장 유명한 미술가로 남아있다. 초기 작
품은 어두운 색조의 작품이었고, 후기 작품은 표현주의의 경향을 보였다. 고흐의 작품은 20
세기 미술운동인 야수주의와 독일 표현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했다.(네이버 지식
백과)

이론적인 것, 정해진 틀은 중요하지 않았다. 보다 더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표출 방법을 찾으려 했고 동세표현에 집중하기로 했다.



【작품3】 까마귀가 있는 밀밭, 1890, 캔버스에 유채, 50.5×103cm.

【작품3】 고희의 작품에서는 동세의 힘이 그대로 느껴진다. 작은 터치들이 모여 바람의 움직임은 보여주는 듯 격렬하게 움직이는 힘에 이끌렸고, 본인의 작품에 그대로 영향을 미쳤다 할 수 있다. 고희가 비극적인 자살을 택하기 전 남긴 마지막 작품인 까마귀가 있는 밀밭은 당시 고희의 심경이 어떠했는지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것 같다.

예술가는 그의 손이 내적인 목소리에 따라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 이 내적인 목소리는 종종 이성에 반해 올바른 것을 스스로 만들어 나간다. 왜냐하면 참다운 예술작품은 설명될 수 없을 만큼 비밀스럽게 생성되기 때문이다. 예술적인 것이 살아 움직이고 있으면, 사고나 이론의 뒷받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¹⁴⁾

14) 칸딘스키, 『점.선.면.-회화적인 요소의 분석을 위하여』, 열화당, 1983, p.200

요동치는 움직임의 표현을 위해서 본인의 손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했다. 화면에 직접적으로 감성을 표현하기 용이한 목탄을 기본 재료로 사용하였다. 기억에 새겨진 현장의 모습을 회상하며 가장 먼저 목탄으로 빠르게 스케치를 했다. 감정의 연결을 위해 선을 되도록 끊지 않고 이어 그려나갔다. 선들은 점점 겹쳐지고 뭉개지기도 하며 덩어리를 만들었고, 그 덩어리들이 모여 울렁거림을 표현 하였다.

작품을 진행하면서 인위적으로 구성하거나 꾸며내려 하지 않았다. 작품 제작 초반에는 공간이라는 장치를 설치해 두고 그 안에서 어떤 조형물을 형성하며 배치하는, 인위적인 구성을 만들어 그 안에 본인의 감성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 했었다. 이런 방식의 진행은 본인이 느낀 현장의 인상과 내밀한 감성을 담아내는 데 걸림들이 되는 행위 같았다. 나 자신에게 솔직하기 힘들었고, 마음껏 표출 할 수 없었다.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에 따라 무의식이 이끄는 대로, 본능적으로 터치를 겹겹이 쌓으면서 진행하였다. 현장감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에도 집중하려했다. 고요한 적막감, 휘몰아치는 바람소리, 서로 뒤엉켜 부딪치는 나뭇잎들 작은 소리까지 담아낼 수 있었으면 했다. 테크닉적으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 보단 조금 어설플지라도 그 현장을 바라보는 관람자에게 보다 더 세밀하게 그 감수성이 전해졌으면 했다.

3) 작품 내용

우리는 살아가면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풍경들과 인물들을 마주치게 된다. 평범하기 그지없는 일상의 모습이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저마다의 스토리가 있음을 느끼게 된다.

본인은 공간이라는 현장 안에서 이상향을 마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는 사각형이라는 틀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사각형의 틀 안에서 보내고 있는데 “모서리를 가진 사각형은 내가, 지금, 여기에, 나를 위해서 만든 삶의 영역을 상징한다. 사각형은 정착하라고 권하고 들판을 둘러싸서 집의 평면도를 이룬다. 사각형은 제한되어 있음, 경계 안에 있음을 의미한다.”¹⁵⁾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사각형이라는 요소를 많이 포함하는 것을 발견했다. ‘나만의 공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작업 안에서 공간과 영역을 표현하고 싶은 자연스러운 욕구였던 것 같다. 작업은 공통적으로 큰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는 화면 틀에 의미를 두고 여백 없이 가득 채워 그렸다. 그 안에서 여러 선들이 만나 공간을 만들거나 인물과 풍경을 감싸주는 울타리가 되어주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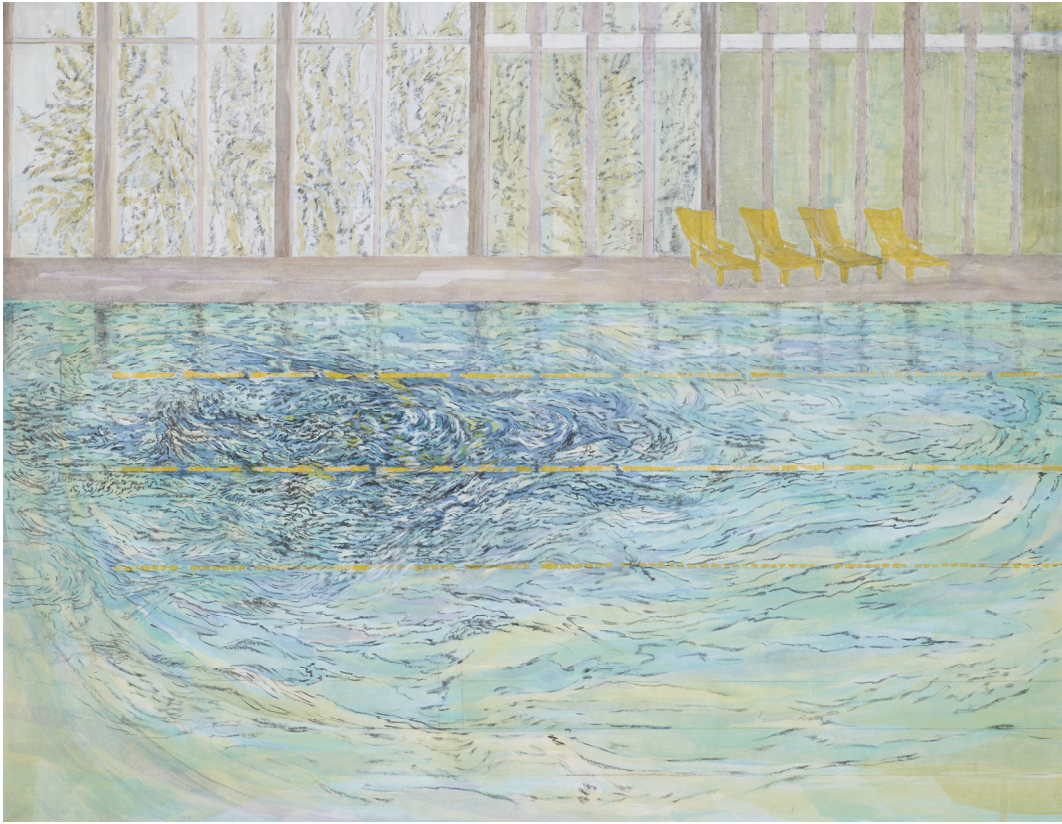
정지되어있는 화폭 안에 본인이 마주한 시각적 이상향을 더 극적으로 표현하고 싶었고 현장의 기운, 생동감을 담아내기 위해 속도감과 동세표현으로 채워 넣었다.

15) 잉그리트 리델, 『도형, 그림의 심리학』 파피페, 2013, p.5.



【작품4】 Scene 1, 2016, 장지에 혼합재료, 72x60cm

【작품4】은 작업을 시작하는 동기가 되어준 장면이다. 아무 생각 없이 달리는 자동차 뒷 자석에 앉아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큰 도로 변두리에 가드레일 안쪽으로 무성하게 자라있는 이름도 없는 풀들을 지나치게 되었다. 너도 나도 더 위로 솟아오르려 하는 듯, 똑같은 풀들은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강한 바람에 뒤엉켜 혼란스러워 보였다. 속도감과 바람이 부는 현장을 나타내고 싶었다. 화면을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공간을 나누어 세상과 단절된 듯 버려진 풀들의 모습을 담아내고 싶었다. 목탄을 이용해 움직임 표현하는 데 집중하였고, 획일화된 풀들을 표현하기 위해 색감은 넣지 않았다.



【작품5】 Scene2, 2016, 장지에 혼합재료, 130x97cm

【작품5】 지나치다 보게 된 화려한 건물 안에 있던 수영장의 모습이다. 아무도 없었고 고요했다. 하지만 이상하게 수영장의 물은 요동치고 있었다. ‘무슨 일일까?’ ‘저 물 밑에 누군가 있을까?’ 추운 겨울이었고 사람의 흔적은 없었다. 고요했다. 한참을 서서 관찰하였다. 수영장 밖의 나무들은 아우성치며 흔들리고 있었다. 물은 햇빛에 비취 반짝였고 빨려 들어갈 것 같았다. 제일 먼저 목탄으로 소용돌이가 치는 듯한 울렁이던 물결을 묘사하는데 집중했고 여러 가지 색상들을 혼합하여 차가웠던 물을 담아내었다. 수영장을 바라보는 시점은 신경 쓰지 않았다. 적막하던 감성의 공간으로 담아내려했고, 사각형의 프레임과 연속되는 직선의 표현으로 안과 밖을 구분 지으면서도 연결시키고 싶었다.



【작품6】 Scene3, 2016, 장지에 혼합재료, 22x27cm

【작품6】 가끔 뒷모습에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된다. 미술관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도중 마주했던 장면이다. 저 남자는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긴 듯 했다. 당시 현장의 구도가 재미있다고 느꼈다. 아치형의 틀을 통해 넘어가면 남자의 공간이 있었고, 그 너머에는 고뇌하는 뒷모습의 남자를 바라보는 숲이 있었다. 관찰자인 본인은 더 드라마틱하게 와 닿았고, 숲은 더 과장하여 표현하였다.



【작품7】 Scene4, 2016, 장지에 혼합재료, 27x62cm

【작품7】 보광동의 허름한 건물이었다. 늦은 밤이었고 간판도 다 떨어진 일층의 약국은 오래전부터 운영을 안 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안쪽에서는 미세한 빛이 흘러나왔고 불이 꺼진 이층 창가에는 여자가 있었다. 사연이 있는 듯 하염없이 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나와 눈이 마주쳤다. 조금은 섬뜩했지만 마음 한 구석이 찼했던 순간이다. 여자에게 물어보고 싶었다. ‘거기서 뭐하세요?’ 왜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아직도 모르겠다. 이 작품

은 빛에 중점을 두었다. 빛에 반사되어진 듯, 김에 서린 듯, 울렁이는 감정을 담아내려했다. 여기서도 사각형이라는 창이 전반적으로 나오게 되었다. 창틀을 타고 흐르는 듯한 물줄기 같은 표현은 본인의 감정 표현을 위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다. 목탄으로 스케치를 하고 파슈로 색을 입힌 뒤 그 위에 짙은 농도의 호분으로 덮어 표현하였다.



【작품8】 Scene 4-1, 2016, 장지에 혼합재료, 26x26cm

【작품9】 Scene 5, 2016, 장지에 혼합재료, 26x2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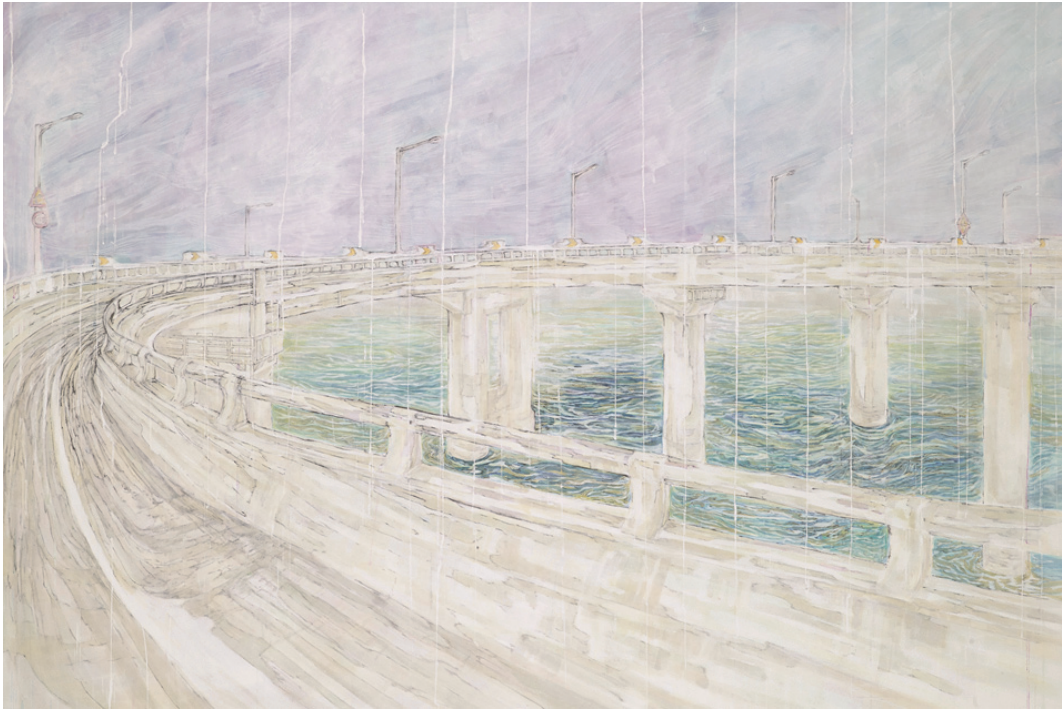
【작품8】 그 여자다. 얼굴의 반을 덮을 만한 크기의 안경을 쓰고 있었고 혼자만 다른 세상에 사는 여자 같았다. 외로워보였다. 나와 눈이 마주치던 순간 여자의 표정이 깊게 기억에 남았다. 작업실로 돌아와 바로 스케치로 이어 작업했다. 화면에 가득 채워 그려 넣고 싶었다. 여자의 머리색과 피부색, 뒤에 배경은 모두 통일시켰다. 저 여자의 세부적인 것은 기억이 나지 않았기도 했고 그런 묘사는 중요하지 않았다. 【작품9】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던 남자였다. 그 식당 안에서 저 남자는 혼자였고 편안해 보였다. 거의 눈을 반은 감은 채 스스로 외로워지기를 바래하던 사람 같았다.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는 듯 생각에 잠겨보였다.



【작품10】 아무도 없었다, 2016, 장지에 혼합재료, 112x145cm

【작품10】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였다. 전시를 보며 정해진 동선을 따라 걸었고 코너를 돌아 마주한 장면이다. 너무 좋았던 순간이였다. 차가운 공기의 밖과 따뜻하고 아늑했던 안이 공존하고 있었다. 네모난 큰 창으로 따뜻한 빛이 들어왔고 울타리 밖의 얇은 나뭇가지들은 부러질 듯 불안해보였다. 혼자 외롭게 자리를 지키던 벤치만이 밝은 빛을 홀로 받으며 유리창에 반사

되어진 모습은 아련했다. 유난히 기억에 강하게 남은 장면이다. 딱딱하게 각진 공간이지만 따듯한 공기가 주변을 감싸주었고 울렁이었던 그림자와 소리 없던 바람, 빛을 표현하였다. 목탄은 거의 쓰지 않았던 작품이다. 다른 작품들과 다르게 밑그림을 어느 정도 한 뒤에 과슈로 천천히 색을 입혀나갔다. 색상 선택 또한 본인의 선택으로 진행했다. 사각형의 큰 창틀과 그림자에 가장 큰 매력을 느꼈기에 그 부분에 집중했다. 공간 너머의 또 다른 공간은 웬지 본인과는 닿을 수 없을 것 같았다.



【작품11】 Moment, 2016, 장지에 혼합재료, 206x140cm

【작품11】 집으로 가는 길이다. ‘항상 정해진 길로 매일 다니는 길이 있다.’라는 것, 어느 순간 새롭게 와 닿게 되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하는지 이미 아는 길은 경계심 없이 무의식적으로 따라가게 된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안에서 바라 본 길은 끝날 것 같지 않았다. 물 위에 동동 뜬 채 도들이표처럼 계속해서 회전할 것 같았다. 유리 같던 한강과 손에 닿을 듯 유난히 낮았던 하늘, 비는 오지 않았다.

속도감을 나타내려 했던 작품이다. 다리의 곡선을 이용하여 시원하게 풀어내고 싶었다. 목탄을 사용하여 스케치를 한 뒤, 호분으로 덮고, 다시 그 위에 스케치를 하며 자리를 잡아갔다. 마치 비를 연상하게도 하고 창살을 연상하게도 하는 위에서 흘러내리는 하얀 물감은 장면의 감정을 더 극적으로 표현할 방법을 연구하다 마지막에 시도한 결과물이다.



【작품12】 Silence, 2016, 장지에 혼합재료, 112x145cm

【작품12】 길 건너편의 사람은 무성한 나무들로 이루어진 금지 구역인 길 잃은 검은 숲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숲은 그를 집어 삼켜버릴 것 같았다. 그는 미동도 없었고 편안해 보였다. 나도 한참을 서서 바라보았다. 비도 오지 않는 날씨에 우산을 쓴 사람은 아우성치는 것 같던 나무들 사이에서 무언가를 애타게 찾는 듯 보였다. 끝내 그의 얼굴은 볼 수 없었다. 나무의 표현에 집중했다. 나뭇잎들은 계속해서 생성되는 듯 무섭게 휘몰아쳤다. 그

나무들이 이루어 만들어진 크고 검은 숲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을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 표현을 위해 한 번에 목탄으로 드로잉을 이어나갔다. 과도치는 듯한 물결모양의 덩어리를 잡으려 했다. 요동치고 혼란스러운 나무와 숲과는 대조되게 바닥과 하늘은 정적인 표현으로 두었다. 관찰자인 본인이 있는 곳과 길 건너 검은 숲의 공간은 다른 세계 같았다. 심리적으로 더 극적인 효과를 주기 위함이었다.



【작품13】 소소한 하루, 2016, 장지에 혼합재료, 27x27cm

【작품13】 공원에서 바라 본 두 사람 사이 미묘한 감정이 느껴졌다. 광화문의 한적한 공원이었다. 더운 여름이었고 사람들은 멍하니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다. 본인 또한 멍하니 앞만 보고 있었다. 그러다 눈에 들어온 장면이었다. 저 두 사람은 뭘까? 등을 돌리고 있었지만 서로를 의식하고 있었다. 네모난 화단을 사이에 두고 무언의 대화를 하고 있는 듯 했다. 이 작품은 정말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빠르게 진행했다. 밝은 이미지로 기억이 되었고 연필로 그리고, 수채화로 열게 칠했다. 두 사람 사이에 있는 나무 한 그루는 나의 모습 같았다.



【작품14】 Scene 6 2016, 장지에 혼합재료 24x24cm

【작품15】 Scene 6-1 2016 ,장지에 혼합재료24x24cm

【작품14】 , 【작품15】 할아버지 생신이였다. 너무 많은 합병증으로 눈과 귀의 기능을 잃으신 할아버지. 오늘이 당신의 생일인지 아닌지도 모르시는, 촛불의 열기도 느끼지 못하셨다. 얼떨떨해하시며 아무런 말도 없으셨다. 많은 생각이 들었다. 한 때는 누구보다 위엄하셨던 나의 할아버지는 이제 겁 많은 아이가 되어버렸다. 인간에게 기본적인 기능을 잃으신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없어보였다. 연필로 드로잉을 한 뒤 먹으로 배경을 칠했다. 촛불이 꺼진 후와 꺼지기 전으로 나눠 작업하였다. 연필로 드로잉 한 뒤 목탄으로 살짝 음영을 넣었다. 먹으로 배경을 칠해 암흑을 표현하였다.



【작품16】 Moment, 2016, 장지에 혼합재료, 206x140cm

【작품16】 철후 같이 어두운 터널 안으로 들어가야만 한다. 묘한 긴장감이 들었다. 어떤 터널이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찰나의 순간은 잊을 수 없었다. 속도감, 움직임, 모두 복합적으로 나타나길 원했다. 본인을 양 옆으로 감싸고 뒤덮으려 하는 것 같은 나무들도 본인과 같이 검은 터널 안을 향해 움직이는 것 같았다. 하늘은 혼란스러웠다. 가장 감정적으로 대했던 작품이었다. 이번 작업도 목탄으로 기본적인 스케치를 진행했다. 물결을 묘사하듯 나무의 곁에 집중했다. 사이사이 하얀 호분으로 색을 입혀 나타내었는데, 어떤 생명체가 안에 숨어있는 듯, 괴기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였다. 하늘에도 바람의 영향을 나타내려 했다. 전체적으로 보라색의 색감은 당시의 분위기와 본인의 감정을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색감이라 생각되어 주로 사용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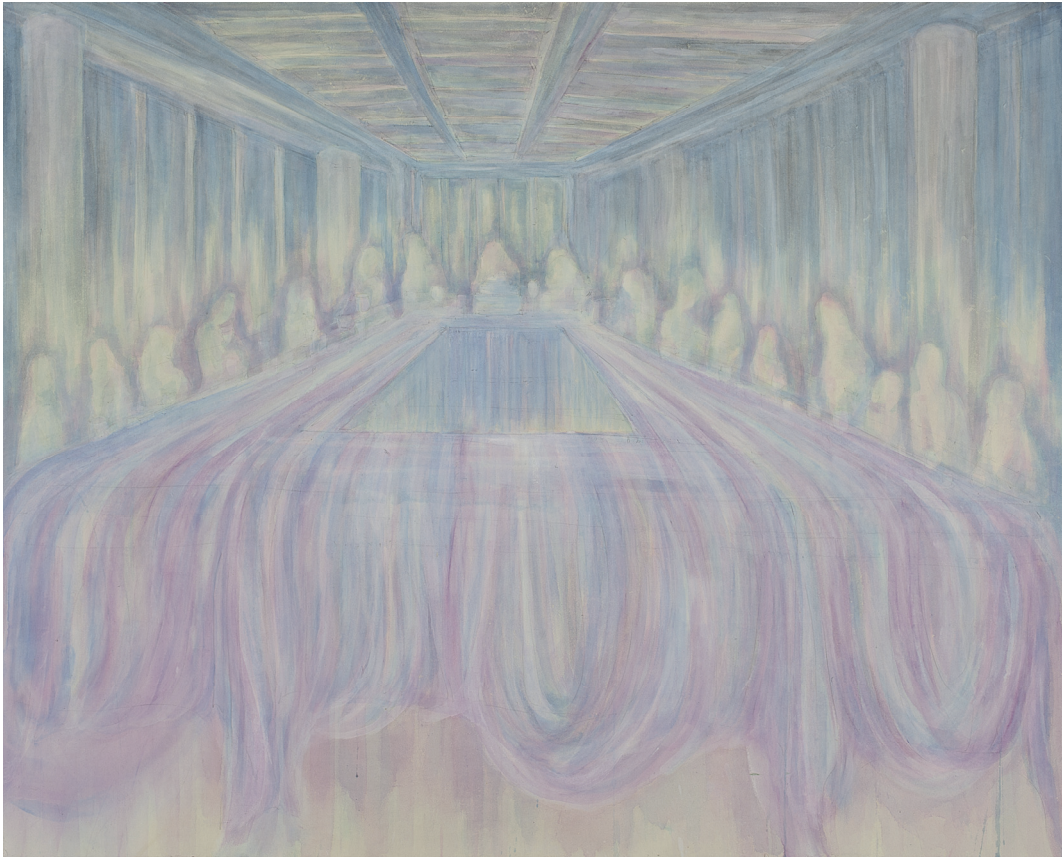
【작품17】 Nothing series, 2015, 장지에 수채화

【작품17】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불안하며 어찌면 두렵기도 한 물. 본인에게 물은 굉장히 추상적인 물질로서 인식된다. 어떤 색도 없으며 향도, 형체도 없다. 어딘가에 흡수되며 사라지기도 하지만 두려운 공포의 대상으로서 인식되어지는 물이라는 컨셉을 잡고 인물을 표현 해보았다. 수채화라는 물과 친숙한 물감을 사용하였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인물의 형체는 투명한 느낌을 표현하려 집중했다. 불안하고 회미한 형체의 인물은 모든 빛을 흡수하며 번지고 있다. 스케치는 거의 하지 않았고 수채화의 농도를 열게 만들어 여러번 칠하면서 번지고 겹쳐지며 만들어진 우연의 효과로 인물을 담아내었다.



【작품18】 Blue, 2014, 장지에 채색, 91×72.7cm

【작품18】 화장실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이다. 많이 지쳐버린 혼란스러운 내면의 모습이 김이 서린 거울에 희미하게 비추어진 나의 모습으로 마주했던 순간이었다. 눈, 코, 입 어떤 형체도 묘사하지 않았다. 있는 듯 없는 듯 나의 존재에 대한 물음표를 있는 그대로 담아내고 싶었다. 이시기 나의 존재는 물처럼 잡히지 않았고, 희미했다. 어떤 면이 뚜렷해지는 것이 싫었다. 선이나 묘사가 조금만 보여도 호분으로 다시 덮었으며 색채 또한 한정적으로 사용하였다. 붓의 터치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터치로 진행하였다. 모두 분채와 호분으로 작업하였다. 차가운 느낌을 위해 푸른 계열의 분채를 주로 사용하였고, 그 위에 호분으로 두텁게 문질러 덮어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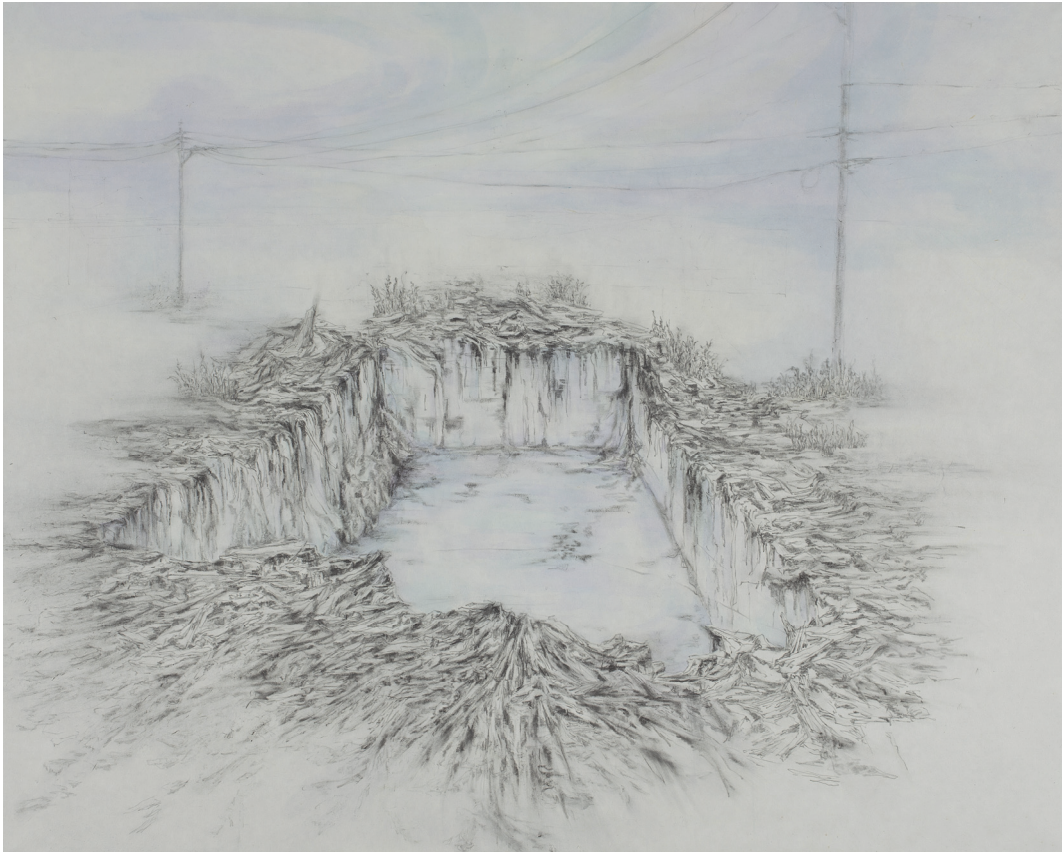
【작품19】 공허한 파티, 2013, 장지에 채색, 162×130cm

【작품19】 할아버지 생신 날 가족들이 모두 오랜만에 모인 자리였다. 연회장은 화려했다. 하얀 천으로 덮인 위엄이 느껴지던 긴 테이블과 높은 천장, 풍족한 음식까지, 모든 것은 완벽한 듯 보였다. 하지만 모두들 같은 공간 안에 함께 있지만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다. 각자의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간간이 공허한 웃음소리가 오고갔다. 어딘지 모르게 차가웠고 어색했다. 작품은 ‘ㄷ’자 형태의 테이블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가까운 듯 먼 거리감을 표현하려고 했고 테이블과 주변 공간의 화려한 색감과 대비되는 인물의 하얀 유령 같은 표현은 공허한 관계를 표현하려한 것이다. 구도에 중점을 둔 작품이다.



【작품20】 아무도 없었다, 2013, 장지에 혼합재료, 162×130cm

【작품20】 서울역사 문화역284의 한 공간이다. 설레는 마음으로 큰 문을 열어 보았다. 독특한 형태의 어두운 방에 열게 들어오던 햇빛과 오래된 가구와 커튼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와 차가운 공기는 넓은 방 안에서 웅웅거리듯 움직이는 것 같았다. 바로 매료될 수밖에 없었다.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도 같은 느낌을 받은 것 같았다. 우리 모두 할 말을 잃고 바라보았다. 다양한 색감으로 표현하였다. 저 공간 안에서는 무한한 감성이 담길 수 있을 것 같았다. 색을 여러 차례 겹겹이 칠한 뒤 차가운 느낌을 위해 호분으로 덮어 다시 감추고 다시 칠하기를 반복했다.



【작품21】 사라짐, 2013, 장지에 혼합재료, 162×130cm

【작품21】 독바위역 쪽의 재개발지역이었다. 이곳은 삶의 터전이었다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삭막했고 공포스러웠다. 태풍이 휩쓸고 가버린 것처럼 그 곳은 세상에 버려진 것 같았다. 사람의 손길이 닿았을 식기들과 가구 등 아직 곳곳에 삶의 흔적이 남아있던 자리는 어딘지 모르게 처량해보였고 허망했다. 그들의 추억이 담겨있을 이 지역은 이제 정말 추억 속으로 사라져버려야만 할 것이다. 그렇게 주변을 둘러보던 중 흔적마저 없어진 집터를 발견했다. 움푹 파여진 땅은 건축물의 자재들로 뒤덮여있었다. 한참을 바라보았다. 목탄과 연필을 주재료로 진행하였다. 파여져 사라진 집터를 중심으로 흙모래와 날카롭던 자재들을 묘사하였고 점점 흩어져가는 듯 표현하였다. 하늘은 옅은 파란색과 보라색으로 표현함으로써 당시의 감성을 담아내었다.

IV. 결 론

본 논문은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우리나라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고질적인 불안함과 원인모를 공허함의 출발점을 찾아보고자 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집단 내의 성향에 따르기를 강요받고 있었던 듯 보인다. 타인으로부터 소외 되고 싶지 않으며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싶지 않은 본능이 불러 일으켜진 반응은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데 큰 방해물이 된 것이다. 이는 개인에게 자아의 혼란과 자존감 하락이라는 문제를 발생시켰고, 이를 더 악화 시킨 요인으로 SNS가 크게 작용했다.

SNS의 사용은 우리 생활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듯 보였다. ‘자기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고 바쁜 현대인들에겐 제약 없는 무한한 소통의 공간으로서 시간 낭비를 줄여주는 안성맞춤인 서비스였다. 하지만 ‘비교 문화’를 심화시키게 되는 문제를 초래하였으며 간접적이며 일시적인 관계형성으로 결국은 공허한 관계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외로운 사회인이 되어버렸다.

결국은 물질만능주의적인 사고와 소비하는 삶에 익숙해진 사회와 그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초래한 문제가 아닐까? 마치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 처럼 우리는 이미 정해진 각본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본인은 이번 논문을 통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심층적인 문제점을 알게 되었다. 단순히 ‘불안하다. 공허하다. 외롭다.’며 호소하는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개인의 삶을 담아내고 있었으며 사회의 문제까지 품고 있었다.

사회라는 틀 안에서 고립되어지고 점점 더 감성이 메말라가는 우리의 모습에서 답답함을 느꼈고 작품으로 풀어내고 싶었다. 2016년 이전의 본인은 사회안의 개인으로서 내면의 한 구석에 조용히 품고 있는 불안함과 풀리지 않는

헛헛함을 그대로 담아내기 위한 작품들을 이어나갔다면 2016년의 작품들은 그 감정들을 풀어내기 위한 시도였던 것 같다. 희미하고 잡히지 않을 듯한 이미지를 추구했던 작업은 강한 선과 붓의 터치로서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집중하였고 자유로움을 추구했다. 과부하 되어있는 사회 안에서 비어있던 공간과 사라져가는 현장을 찾아내고, 담아내는 과정이었던 이전의 작업을 이어 그 공간과 현장에 대한 사색을 통해 받은 인상을 본인만의 해석으로 시각적 울림을 일으키기 위한 표현연구였다 생각된다. 본인에게 회화는 관람자의 감성을 이끌어 내어 그대로 작품에 이입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라 생각된다. 내면의 강한 울림으로 작품과 소통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현재 본인에게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에 대한 문제와 감성을 작품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같이 공감하며 깨닫기 위한 행위인 것 같다. 이 모든 문제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개인이 주체적으로 해결해 나아가야 할 문제가 되었다. 본인이 가장 크게 느낀 문제점은 우리가 점점 피상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을 대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래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가장 즐겁다한다. 막무가내로 멋대로 사는 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사회와 타인을 쫓아가기보다 자기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똑바로 알고 있으며 그 목표를 위해 주체적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가장 먼저 자신에게 솔직해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개인은 집단이라는 큰 우리 안에 속해있는 작은 존재이다. 하지만 작은 개인이 모여 큰 집단을 이루 듯 우리 자신을 너무 귀속된 존재로서 치부하지 않았으면 한다.

참 고 문 헌

국내 학술지 논문

- 차경호, 홍기원, 김명소, 한영석, 「한국성인의 자존감 구성요인 탐색 및 척도개발」, 한국심리학회, 2013
- 박선영, 「한국사회 증상으로서의 집단주의와 개인주의_정신분석적 고찰」, 한국라깅과 현대 정신분석학회, 2016

단행본

- 잉그리트 리델, 『도형, 그림의 심리학』, 파피페, 2013
- 나다리엘 브랜든, 『자존감의 여섯 기둥』, 교양인, 2015
- 실비아 보르게시, 『호퍼, 고독한 현대인의 자화상』, 마로니에북스, 2009
- 룰프 쿤터 레너, 『에드워드 호퍼』, 마로니에북스, 2005
- 빈센트 반 고흐, Editer by H. Anna Suh, 『VINCENT VAN GOGH 고흐의 재발견』, SYSO, 2012
- 칸딘스키, 『점.선.면.-회화적인 요소의 분석을 위하여』, 열화당, 1983

사이트

- 네이버 지식 백과

ABSTRACT

A Study of Expression of a Modern Man Losing the Ego

- With a Main Focus on the Author's Work -

CHO, Hyun Joo
Dept. of Oriental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thesis is a study on the works of the anxiety of people living in the present age (2013 ~ 2016) seen through scenery and figures. It observes people nowadays who belong in a society where 'communication' and 'relationships' cannot be avoided, and thinks about whether we live independently with our own clear views. Many individuals may have experienced numerous situations where they may have had to confront themselves in South Korea where there is a strong tendency for collectivism.

This is why we can see the phenomenon of individuals finding themselves feeling unstable in their inner selves as they exhibit behavior or speak while being conscious of other peoples' views, or as they show

unconditional agreement and sympathy to other peoples' views for the mutual harmony within the group. I was personally curious why such relationship formations within the group were getting intensified.

Social Network Services (SNS), the most influential communication tool nowadays is being used worldwide in a useful way. Under the assumptions that SNS, that enables the formation of relationship networks thought it may be indirect, is the major source in creating anxiety and loneliness of individuals and the society, I continued my work by trying to express the feeling of anxiety and emptiness that cannot be resolved felt by people nowadays, who live in such a society.

This thesis is a study on my thought process during the course of my work, as I thought about ways in which internal resonance can be conveyed to viewers. I expressed the loneliness in our society, felt by myself, through everyday scenes that we see in our daily lives and ordinary people that we see all around. I aim to conduct a comparative study through the works of artists that have had an influence, through my own perspectives in how I observe space, my attitude towards painting, and how the movement that can be commonly seen in the works were derived.